

## 필리핀 거주 한국인의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관계

박민정<sup>1)</sup>·최순희<sup>2)</sup>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이민자들은 이민과 더불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고, 주요 생활사건이외에 일상생활에서의 혼란이 이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문화권이 다른 나라로 이민한 한국인의 스트레스 반응은 같은 문화권에서 사는 미국인과는 다른 반응양상이 나타났으며(Lee, 1992), 일반적인 미국인들에 비해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포함한 소수 민족집단의 정신건강이 일관성 있게 나쁜 것으로 나타났던 역학적 연구결과들(Kuo, 1984)을 통해서 볼 때, 이민자들은 정신건강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집단이다. 그러나 이를 충분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sai et al., 1981; Snowden, 1982; Wong, 1982; Moritsugu & Sue, 1983), 이들의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간호중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반응이 우울과 불안증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Robbins & Larson, 1985), 이민자들의 57.5%가 그들의 문제를 심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Ying, 1990). 미국 이민 한국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우울 증상군이 포함되었고(Lee, 1993), 중년 이민여성들의 77.3%가 임상적 우울을 나타냈던 결과(Miller, Sorokin, Wilbur & Chandler, 2004)들은 우울이 이민자들의 중요한 정신건강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울한 이민여성이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더 많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보고하였으며(Zelkowitz et al., 2004), 비우울모는 더 적은 스트레스 생활사건 그리고 남편과 확대가족들로부터 훨씬 더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 Carmichael, 1985). 이와 같이 이민자들의 생활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우울을 초래하지만 적절한 지지 제공을 통해서 생활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때 우울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 이론은 스트레스 정도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에 유익한 효과를 지닌다는 주효과(Cohen, 1985)와 스트레스가 심리적 고통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다는 완충효과(Krause, 1986)의 이분론적 접근이 대표적이다. Lin(1986)이 제시한 중재효과 모형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게 되고, 사회적 지지는 결과적으로 우울 증감소에 작용하는 완충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민 여성집단 우울의 주요 예측요인이 지각된 스트레스와 조절능력이었다고(Franks & Faux, 1990), 사회적 지지의 강화가 이민자의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제안(Ying, 1990)이 있었으므로 사회적 지지가 이 변인들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임을 확인해서 간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한국교민들이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각각 확인하며, Lin(1986)의 중재 효과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울의 유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변인

주요어 :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한국인, 필리핀

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교신저자 E-mail: pgy35@hanmail.net)

2)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투고일: 2005년 9월 27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일

기능을 검토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가설**

- 생활스트레스가 많은 대상자가 적은 대상자보다 우울점수가 높을 것이다.
- 사회적 지지가 많은 대상자는 적은 대상자보다 우울점수가 낮을 것이다.
- 사회적 지지를 통제하면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높아질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대상자는 필리핀 마닐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연구에의 참여를 허락하고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2년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연구보조원이 종교단체나 대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후 설문지 110부를 배부하여 응답케 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1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 우울

우울은 이전 일주일동안 우울 증상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Radloff(1977)가 개발한 도구(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를 Choi (1995)가 번역하여 사용했던 20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범위는 0 - 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 도구의 16점은 임상적 우울을 나타내는 절단점으로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이었다.

• 생활 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는 연구자가 문헌(Choi, 2001)을 기초로 개발한 시각적 유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대상자가 최근 1개월간 경험한 생활사건과 관련된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00mm의 직선을 균등하게 3등분하여 각 칸의 밑에 어려움 정도를 '약간 느끼다', '보통정도 느끼다', '많이 느끼다'를 기재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해당지점에 V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시된 부위의 길이를 어려움 정도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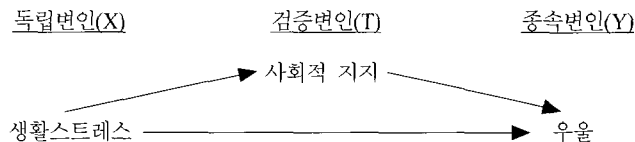
였으며 최고점수는 100점이다.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도구 (ISEL)를 기초로 해서 Suh(1989)가 번역·수정한 대인관계 지지의 지각척도인 총 18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범위는 18-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가설 1, 2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각 변인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서열척도로 측정된 자료의 상관도를 검증하기 위해 Gamma를 사용하였고, 가설 3의 분석을 위해서는 Partial Gamma(Gp)를 이용하여 부분상관도를 검증하였다. 세 변인간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은 같은 변인들이 하위집단에 따라 독립, 종속변인의 관계가 같은지를 알게 하며, 두 변인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제 3의 변인을 동시에 보면서 변인들의 이론적 순서를 좀 더 분명히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Babbie(1986)와 Rosenberg(1968)가 제시한 Elaboration Model에 근거하였다<Figure 1>.



<Figure 1> Elaboration Model에 의한 분석기틀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3.8세였고, 성별은 남자,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각각 57%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 55%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44%로 대부분이 고학력자들이었다. 직업이 없는 자가 52%였고, 평균 거주기간은 평균 47.7개월이었으나 18개월이하군이 33%로 가장 많았다.

**연구변인의 점수범위 및 평균**

대상자의 우울은 최소 2점, 최대 48점으로 평균 19.7점이었고,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은 정신과 환자들에서 관찰된

것과 동등한 정도의 임상적 우울(CES>16점)을 나타낸 대상자는 70%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최소 18점, 최고 71점으로 평균 49.3점이었으며, 생활스트레스의 점수범위는 18-100점으로 평균 66.0점이었다<Table 1>.

<Table 1> Range & Mean score of study variables

Variable	Range	Min.	Max.	M±SD
Depression	0- 60	2	48	19.76± 6.78
Life stress	0-100	18	100	66.01± 1.48
Social support	4- 72	18	71	49.30±10.02

가설검증

‘생활스트레스가 많은 대상자가 적은 대상자보다 우울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연관이 있는 순상관(Gamma= .45,  $x^2=5.75$ ,  $p= .017$ )으로 나타나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2>.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life stress depression	life stress		total
	low	high	
low	30(61.2)	19(37.3)	49
high	19(38.8)	32(62.7)	51
Total	49(100.0)	51(100.0)	100

Gamma= .45  $x^2= 5.75$   $p= .017$

‘사회적 지지가 많은 대상자는 적은 대상자보다 우울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가 유의한 역상관(Gamma= -.56,  $x^2=9.18$ ,  $p= .002$ )으로 나타나 제 2가설이 지지되었다<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social support depression	social support		total
	low	high	
low	21(36.8)	29(67.4)	50
high	36(63.1)	14(32.5)	50
Total	57(100.0)	43(100.0)	100

Gamma= -.56  $x^2=9.18$   $p= .002$

제 3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로 Elabora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생활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지지를 검증변인으로 통제하여 부분상관(Partial Gamma=Gp)을 검정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변인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통제변인들의 조건에 따라 상반되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사회

적 지지를 통제한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원래의 상관계수(.45)보다 높아지고(Gp= .52), 사회적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 두 변인의 관계가 낮아졌다(Gp= -.24). 이와 같이 한 부분 상관관계가 원래의 두 변인관계보다 같거나 높아지고 또 한 편이 낮아지면 Elaboration의 specification pattern 이라고 했다. 이는 어떤 특정조건에서만 두 변인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는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울이 더 많아진다고 구체적으로 조건을 주어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두 변인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가설 3은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under the controlled condition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life stress depression	low(a)		high(b)	
	low N(%)	high N(%)	low N(%)	high N(%)
low	16(64.0)	9(36.0)	11(44.0)	14(56.0)
high	9(36.0)	16(64.0)	14(56.0)	11(44.0)

a : Partial Gamma(Gp)= .51  $x^2=3.92$   $p= .048$

b : Partial Gamma(Gp)= -.24  $x^2= .72$   $p= .396$

논 의

본 결과에서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가 총 60점 중 평균 19.76점으로 나타나 중년 이민여성의 23.56점(Miller et al., 2004)보다는 낮은 경향이였다. 그러나 본 저자가 사용한 우울 도구(CES-D)의 개발자인 Radloff(1977)가 정한 임상적 우울의 절단점인 16점이상인 비율이 70%로 나타난 것은 중년 이민여성의 77.3%가 임상우울이상의 점수를 나타낸 결과(Miller et al., 2004)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Radloff(1977)의 연구 결과에서 건강한 지역사회표본의 평균이 7.94 - 9.25점이었고 이들의 임상적 우울의 비율이 15%에서 19%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필리핀거주 한국인들이 정상인보다 훨씬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임상적 우울이 대상자의 2/3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는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의 주요 우울증이 29.27%-14.63%(Pang & Lee, 1994), 캐나다 이민한국인의 우울증이 4.5%(Samuel et al., 1992), 캐나다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임상적 우울이 중국계 35%와 베트남계 24%(Franks & Faux, 1990), 러시아 유대인 이민자의 임상적 우울증상이 43.9%(Hovey, 2000)로 나타난 결과들과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이민자의 개인적 특성, 고국명, 이민장소에 따라 우울정도가 다양할 수 있고 측정도구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애틀거주 한국계 미국인이 중국, 일본 및 필리핀계 미국인에 비하여 가장 높은 우울 점수를 나타냈고(Kuo, 1984), 미국인들에 비해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포함한 소수 민족집단의 정신건강이 일관성있게 나쁜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들(Cabezas, 1982; Kuo, 1984), 그리고 미국내 한국이민자의 10개 스트레스 반응들 중 우울정도가 3번째로 높아 추후관리와 간호가 필요한 수준이었던 결과들에서 처럼 해외거주 한국인의 우울문제는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민 한국중년여성의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역상관( $r = -.62$ )을 나타냈으므로(Han, 2000) 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울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예방하거나 해결해주는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정도는 총 100점 중 평균 66.01점으로 나타나 중정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멕시코계 미국이민자들이 특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는 보고(Rogler et al., 1987; Vega, Kolody, Valle & Hough, 1986)나 4개 이민집단 중 두 아시아계 집단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더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했다는 결과(Franks & Faux, 1990)와 유사한 결과로서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Hovey와 King(1996)의 연구에서 우울(15.5%)과 문화적 적응스트레스(6%)가 이민 고교생의 자살 상상하기 총 변량의 21.5%를 설명하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민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생활스트레스가 많은 대상자가 적은 대상자보다 우울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과 불안이며(Robbins & Larson, 1985), 이민의 여러 스트레스요인으로 인해 우울과 다른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Canadian Task Force, 1988)는 주장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미국 내 한국이민자들(Oh, Koeske & Sales, 2002), 이민 1, 2세대 고등학생들(Hovey & King, 1996) 및 멕시코계 이민 여성(Salgado de snyder et al., 1989)에서 문화적 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이 순상관으로 나타난 결과들 그리고 이민 중국여성들이 우울의 원인을 외적인 스트레스로 여겼던 결과(Ying, 1990)와 일치되었다.

사회적 지지가 많은 군이 적은 군보다 우울점수가 더 낮게 나타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역상관으로 나타난 결과(Franks & Faux, 1990)와는 일치하였으며, 또한 이민 중국여성 중 주요 우울을 심리적 문제로 생각했던 자들의 69.6%가 그 문제를 비의학적이고 대인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자신이나 가족 및 친구들에게 도움과 지지를 청하도록 주장했던 결과(Ying, 1990), 그리고 캐나다 이민 한국인의 남편이나 확대가족의 지지부족(Samuel et al., 1992)이나 사회적 지지부족(Beiser, 1988)이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므로 우울발생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우울의 예방이나 감소가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이나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관계나 설명력 여부를 밝히는 결과들에 불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Babbie(1986)와 Rosenberg(1968)가 제시한 Elaboration에 의해 두 변인인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제 3의 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의해 받게 되는 영향을 확인하고 변인의 이론적 순서를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재변인으로서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상호작용하여 건강문제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검증변인으로 들어간 사회적 지지는 지금까지의 보고와는 달리 중재변인으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가설 3에서는 독립변인인 생활스트레스가 검증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고 다시 종속변인인 우울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검증변인이 중재변인으로 성립된다는 다변수 관계의 해석을 기대하였다. 이 가설에서는 검증변인의 중재변인 역할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특정한 조건하에서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하고 그것에 의해 우울 정도가 달라지는 specification 양상이 나타난 것은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의미하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검증변인으로 분석한 Oh와 Han(1990)의 결과나 생활스트레스와 산후 우울 관계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검증변인으로 분석한 Choi(200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개발을 통해서 우울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필리핀 거주 한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검증변인으로 하는 Elaboration model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변인간의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생활스트레스가 많은 대상자가 적은 대상자보다 우울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Gamma = .45, x^2 = 5.75, p = .017$ ).
- ‘사회적 지지가 많은 대상자는 적은 대상자보다 우울점수가 낮을 것이다’는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Gamma = -.56, x^2 = 9.18, p = .002$ ).
- ‘사회적 지지를 통제하면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높아질 것이다’는 제 3가설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

서만 지지되었으므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Partial Gamma= .51,  $\chi^2=3.92$ ,  $p=.048$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생활스트레스 감소에 관심을 가져서 이로 인한 우울의 발생을 적게 해야 하며,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만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지지는 완충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증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재개발을 통해서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Babbie, E. (1986).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4th ed)*. Belmont, California : Wadsworth publishing Co.
- Beiser, M. (1988). Influences of time, ethnicity and attachment on depression in Southeast Asian refugees. *Am J Psychiatry*, 145, 46-51.
- Choi, S. H. (1995). *Function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S. H. (2001). The relationship among the degrees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postpartal women. *J Korean Acad Fundam Nurs*, 8(2), 199-209.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 Appl Soc Psychol*, 13, 99-125.
- Cohen, S., & Willi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 Bull*, 98, 310-357.
- Franks, F., & Faux, S. A. (1990). Depression, stress, mastery, and social resources in four ethnocultural women's groups. *Res Nurs Health*, 13(5), 283-292.
- Han, G. S. (2000). A Study of Stress Reaction, Symptoms of Stress,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Korean Immigrant Middle Aged Women. *J Korean Acad Nurs*, 30(3), 606-618.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5(9), 1183-92.
- Hovey, J. D. (2000). Psychosocial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Central American immigrants. *Psychol Rep*, 86(3 Pt 2), 1237-1240.
- Krause, Neal. (1986).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 Gerontol*, 41(4), 512-519.
- Kuo, W. H. (1984).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Asian-Americans. *J Nerv Ment Dis*, 172(8), 449-57.
- Lee, S. W. (1992). A study on stress responses of Korean-American. *J Korean Acad Nurs*, 22(2), 238-247.
- Lee, S. W. (1993). Correlation study between stress responses and life events as a stressor. *J Korean Acad Nurs*, 23(2), 299-315.
- Lin, T. (1986). Multiculturalism and Canadian psychiatr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an J Psychiatry*, 31, 681-690.
- Miller, A. M., Sorokin O., Wilbur J., & Chandler P. J. (200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enopausal status, and depression in midlife immigrant women. *Wom Health Issues*, 14(6), 227-34.
- Moritsugu, J., & S. Sue. (1983). *Minority Status as a Stressor. In Preventive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 Pergamon Press.
- Oh, K. S., & Han, J. S. (1990). Stressful life events, health symptoms,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early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20(3), 414-429.
- Oh, Y., Koeske G. F., &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 Soc Psychol*, 142(4), 511-526.
- Pang, K. Y., & Lee, M. H. (1994).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somatic symptoms among Korean elderly immigrants. *Yonsei Med J*, 35(2), 155-161.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 Measurement*, 1, 385-401.
- Robbins, D. R., & Larson, M. M. (1985). Limitations of self-rating depression scales. *J Clin Psychiatry*, 46(7), 301.
- Rogler, L. H., Malgady, R. G., Costantino, G., & Blumenthal, R. (1987). What do culturally sensitive mental health services mean? The case of Hispanics. *Am Psychol*, 42(6), 565-570.
- Salgado de Snyder, V. N., Cervantes, R. C., & Padilla, A. M. (1989). Posttraumatic stress in immigrants from Central America and Mexico. *Hosp Community Psychiatry*, 40(6), 615-9.
- Suh, M. J. (1989).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State of Adaptation of The Hemipleg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Vega, W. A., Kolody, B., Valle, R., & Hough R. (1986). Depressive symptoms and their correlates among immigrant Mexican women in the United States. *Soc Sci Med*, 22(6), 645-52.
- Williams, H., & Carmichael, A. (1985). Depression in mothers in a multi-ethnic urban industrial municipality in Melbourne. Aetiological factors and effects on infants and preschool children. *J Child Psychol Psychiatry*, 26(2), 277-88.
- Ying, Y. W. (1990). Explanatory models of major depression and implications for help-seeking among immigrant Chinese-American women. *Cult Med Psychiatry*, 14(3), 393-408.
- Zelkowitz P., Schinazi J., Katofsky L., Saucier J. F., Valinzuella M., Westreich, R. & Dayan, J.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pregnant immigrant women. *Transcult Psychiatry*, 41(4), 445-64.

##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Koreans Living in the Philippines

Park, Min-Jung<sup>1)</sup> · Choi, Soon-Hee<sup>2)</sup>

1) Teaching Assistant,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100 Koreans living in the Philippines. Theoretically social support is considere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 to May 30, 2002 and analysed using SAS. The first, two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Gamma, a measure of association for ordinal variables. Partial gamma was used to test the third hypothesis. Patterns of elaboration described by Babbie(1986) were selected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of the three variables in the analysis. **Results:** 1)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Gamma=.45, P=.017), and a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Gamma=-.561, P=.002). Thus the first, two hypotheses were supported. 2) When social support was controll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creased under the condition of low social support but with high social support, the relationship decreased. **Conclusion:** It can be interpreted that life stress i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under the condition of low social support, however this relationship may be reversed with high social support.

**Key words :** Life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Koreans, Philippine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Min-Jung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 Hak 1 Dong, Dong-gu, Gwangju 501-746, Korea

Tel: +82-62-220-4170 Fax: +82-62-233-0305 E-mail: pgy35@hanmail.net